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

건강한 아이 위한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등

순천시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 없는 안심 출산환경 조성과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쳐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임신 전 예비부모 건강관리로 선천성기형아 출산 등 사전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건강한 태아를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해 산전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예비부모에게 엽산제 3개월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순천시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난임부부이다.

또한, 기존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추가 설치함으로써 아이가 많은 신도시의 젊은 가구에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

연회비는 2만원으로 장난감 21일, 출산육아용품은 90일로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를 연회비 면제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대여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가의 출산·육아용품 대여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다자녀를 위한 세대중요유교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확대하고 전입가구를 포함한 관내 3자녀 이상 세대 중 13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20종의 문화·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가구는 해당 읍면동

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아울러,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외에 시비를 확보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최대 50만원을 지원, 한방 난임치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해 최근 개소식을 시작으로 난임 및 임신부의 정신건강 심리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안심출산 환경조성을 위한 정서적 지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2018년 정부합동평가 '저출산 우수사례'에서 최고등급 선정 및 전남 저출산 극복 추진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출산정책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순천=황경석 기자

함평군 2019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주요작목별 교육 등 27회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산작목인 벼 양념체소를 중심으로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 3개 분야에 대해 27회에 걸쳐 진행되며, 영농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 현재 함평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건립과 농축산업 6차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함평나비쌀 지역특화작목 등 주요 작목별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품질향상 실천과제기술,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기술 등을 설명한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농정현안도 함께 교육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물론, 지역에 맞는 유망작목과 특새작목까지 안내해 지역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함평=김광훈 기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근로자 80여명 모집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4개 분야에 걸쳐 80여명을 채용, 약 10억원의 국고를 투입할 계획이다.

채용된 근로자 80여명은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방과 방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각 분야별로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진화대 12명, 일반진화대 51명, 병해충예찰단 10명, 보호지원단 4명 등이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통해 산림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 숲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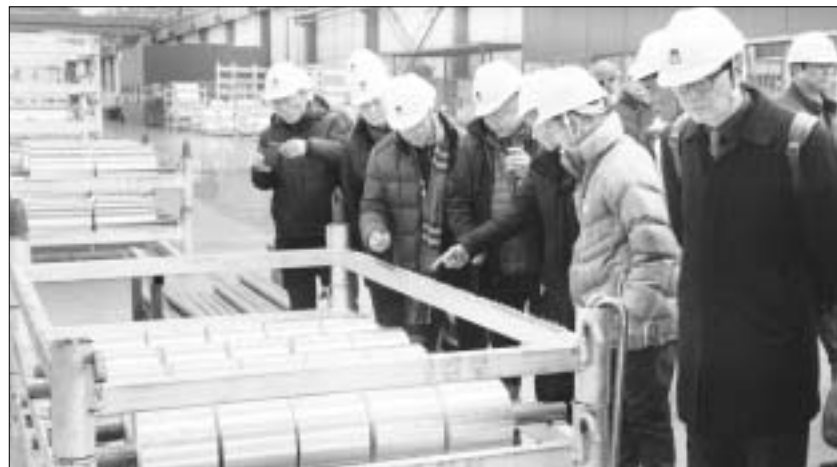
또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년층의 실업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춘 소장은 "이번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경제청, 세풍산단 알루미늄 공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주민대표단·광양시의회·조합회의 위원 중국 현장 다녀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일자리 창출과 광양항 물동량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광양알루미늄(주)의 환경문제를 불식시키고자 중국 현지 공장 방문을 추진 하였다.

최근 주민대표단과 광양시의회, 조합위원회 등 29명이 광양알루미늄의 모기업인 중국 망타이 알루미늄

을 방문하여 알루미늄 공장시설과 공정을 둘러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환경오염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공장을 꼼꼼히 살핀 주민대표단은 "이동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다"며 "우리 지역에 들어설 광양알루미늄공장이 이런 공정으로 가동되고 관리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용 광양청 조합회의 의장은 "투자계획에 의하면 광양알루미늄은 2020년 2단계 투자 시 총 300명의 고용계획과 알루미늄 박제조업체 등 다양한 2차 가공 연관산업이 따라 들어서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 1만천 TEU 수출입 물동량은 광양항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문 소감을 밝히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공장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은 "환경오염원인 제천 공정이 없고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공정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로서,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광양항 물동량 확보가 가능한 공장의 유치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방문 결과에 따른 공식입장으로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공제 받으세요"

보성군은 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균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될 경

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괄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청 재무과(☎850-515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갖고 청렴도 1등급 유지 다짐

광양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명예감사관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청렴도 전국최고인 1등급을 유지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2018년 청렴도 전국최고 등급인 1등급 달성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렴도 1등급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명예감사관들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

인 '1등급' 기관 선정과 더불어 전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참석한 명예감사관들은 이제는 광양이 명실공히 청렴도시로 우뚝 섰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청렴도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범시민 청렴확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정현복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가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룩한 성과이며,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이다"며 "명예

감사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 덕분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양시가 청렴도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사관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명예감사관제도'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제보 등 주민의 참여를 통한 부패예방과 청결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